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9. Vol. 20. No. 1. pp. 173~202.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 가 영*

초 록

이 논문은 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자발성'의 문제를 이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현재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보호/처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지닌다. 청소년 성매매의 자발성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행위를 자발적 동의로 보는 시각과 가족/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회구조적 피해로 보는 시각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크게 적극적 행위성과 탈규범적 행위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성의 맥락은 학력의 계급 이동의 기능 상실에 대한 간파,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지배적인 가치로 자신을 유예하고 훈육할 동기의 상실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성매매에서의 자발성은 성매매를 선택하는 자발성이자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자발성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행위성은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동기를 상실하고 회복하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과정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몇몇 사례들로부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청년기까지 연속선을 갖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회복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자발성, 피해자의 양분화된 시각을 넘어서 이들이 성매매에 대해 취하는 적극적이고 탈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만드는 조건과, 상황에 따른 유동적 과정으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청소년, 성매매, 자발성, 보호, 처벌, 전망상실, 동기 상실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Ⅰ. 서 론

이 논문은 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자발성'의 문제를 이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현재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보호/처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지닌다.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법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실상을 검증하여야 하는 사회과학적 인식과, 파악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심희기,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 자발성의 실태와 성격, 그 물적,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고 이에 기반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보호와 처벌의 논쟁을 각각 평가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성보호법은 행동과제의 요구를 따라 성매도 소녀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매도 소녀들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보호법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아동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 대신 정황이 나쁠 때 검사의 재량으로 그들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한국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은 유엔 아동권리조약의 후속 이행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1996년의 스톡홀름 컨그레스의 선언과 행동과제의 이행 촉구에 발 맞추어 상업적 아동 성착취를 억제하는 가시적 조치 마련의 맥락 속에서 제정되었다.[2] 따라서 한국 청소년 성보호법은 국내의 자생적 필요성 보다는 국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만큼 한국 청

1) 성보호법 제 13조. 심희기(2002) 재인용

2) 유엔 아동권리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지구촌 아동들에게 보장하려는 아동의 권리를 말하며 청소년 성보호법이 언급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란 아동권리조약의 후속 이행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1996년의 스톡홀름 컨그레스의 선언과 행동과제를 가리킨다. 스톨홀름 컨그레스의 선언과 행동과제는 아동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 현상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표지를 상업적 아동 성착취로 개념화 하면서 국제적 규모에서 상업적 아동 성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과제를 채택하고 그 이행을 모든 아동권리조약의 조인, 비준국과 컨그레서 참가국들에게 촉구하였다. 이 스톨홀름 컨그레스의 행동과제는 모든 아동권리조역의 조인 비준국과 컨그레스 참가국들에게 5년 후인 2001년에 개최될 요코하마 컨그레스 이전인 2000년까지 상업적 아동 성착취를 억제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시켰다.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이 2001년 시한을 앞두고 급히 마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성보호법의 성립에는 국내적 요인보다 국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심희기, 2002)

소년 성매매의 실정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성보호법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 성매매 관련한 논쟁들이 존재해 왔다.

기존에 청소년 성보호법 중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과 강제성, 그리고 이에 따른 보호와 처벌 여부[3]의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논쟁은 성매매 청소년을 단순한 피해자로 볼 것인가, 자발적인 행위자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어왔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성매매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4]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은 진정한 자발성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다.(박미숙, 2001; 노혁, 2000; 남미애, 2004; 배기석, 2005; 이경재, 2001; 심희기, 2002; 홍봉선, 2007)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의 적극활용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김지선, 2001)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체의 접촉이 있지 말아야 하는 연령대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어떠한 상해, 수치를 유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매매를 발생시키는 모든 제반 사회적 조건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희망적이며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감 있고 건강하고 자기 충족적으로 살 삶에 대한 권리를 지닌 나이 어린 사회 구성원의 삶에 총체적으로 끼치는 엄청난 영향력 때문이다. 이 영향력은 단지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생명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자발성과 보호 처벌의 논쟁은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현실, 문화, 생활세계와 그것이 청소년의 총체적 삶 전반에 야기하는 영향과 효과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잠재된 시민으로 성장할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어떤 식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3) 법제정 당시를 전후하여 이 법 운용상 문제점으로는 1)구성요건의불명확성, 2)성매매 청소년 처벌문제 3)신상공개 위헌 시비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상향 문제등의 논란이 이어져 왔다.(배기석, 2005)

4) 지난 2001년 6월 7일 서울지방 검찰청은 법무부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건의하였으나 그러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매매 적극 유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할경찰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보호처분의 여지를 확대하는 정도에서 종결.(배기석, 2005)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성매매 청소년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매매 청소년을 둘러싼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적절한 제언 마련이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성매매의 선택, 행위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발성과 그 맥락
2. 시간의 과정 속에서 보이는 자발적 성매매의 성격과 출구의 가능성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을 주 연구 참여자로 삼았다. 인터뷰 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진행 되었고 서울/경인 지역에 있는 4군데 쉼터와 중학교,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전체 인터뷰 사례에서 일부 사례는 일 년에 걸쳐 3-4회 지속적 만남을 가졌다. 이들로부터 이들이 새로 만나게 된 친구들을 소개받는 식의 눈덩이 표집방식(snow-baw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 인적 사항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이름(가명)	연령	학력 사항	가 족 력	부모 직업
1	정미	19	중 1 자퇴	부모 이혼 후 모, 모의 동거남과 거주. 동거남에게 성폭력. 가출 시작	부:제조업 공장 직원->택시 운전. 모: 화장품 영업->다방
2	경아	18	고1 자퇴	부모 이혼 후 모와 거주. 가출 시작	부:무역업->실패 후 무직. 모: 부의 실직 후 피부관리실
3	지선	18	고 1자퇴	부모 이혼 후 부와 거주. 부 사망 이후 재혼한 모와 거주.가출시작	부: 실직 후 일용직. 모: 일용직

	이름(가명)	연령	학력 사항	가 족 력	부모 직업
4	혜슬	17	중 1자퇴	부모 이혼 후 재혼한 모와 거주. 계부에게 성폭력. 가출 시작	계부: 일용직 모: 일용직.
5	경미	19	고 1자퇴	부모 이혼 후 조부모와 거주. 가출	부: 자영업-〉건설 일용직
6	한결	16	중 2자퇴	부모 이혼 후 부와 거주. 가출	부: 자영업-〉식당-〉과일 도매 중개인.
7	지연	17	중 3자퇴	부모 이혼 후 조모와 거주. 가출	부: 자영업-〉물품 관리
8	혜림	18	실업계고교 재학중	부모 이혼 후 부와 거주. 현재 시설 거주	부: 무역업-〉택시 운전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의 성격과 맥락을 드러내고 보호/처벌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일 년의 기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한 방법은 일회성 인터뷰에서 얻을 수 없는 이들 삶의 변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질적연구방법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현장기술지적 연구가 채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발적 성격의 이면을 구성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그것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미리 제한한 가설에 기반 한 몇 가지 항목들을 통한 양적 조사 보다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출의 요인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 현장 기술지적 연구가 다른 연구 방법론에 비해 적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문화 연구는 개인과 구조 간의 역동성을 중요시 하는 관점에 기반해 있다. 즉 개인 외부의 객관적 구조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 있는 개인이 그 구조가 내재화된 구체적인 생활 세계 속에서 주관적 의미체계를 형성 시킴으로써 구조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문화 연구의 중요한 관점이다. 이러한 주관적 의미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인이 보여주는 특정한 경

험, 경향등이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십대를 둘러싼 외부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형성하는 주관적 의미체계-하위문화-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태들이 가진 이면의 맥락과 과정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보다 생산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3. 분석 방법

심층면접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성매매 청소년이 성매매에서 보여주는 행위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분석, 둘째, 그것이 가족, 또래의 하위문화의 조건과 그 조건에 기반 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체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연관되는 방식, 셋째, 성매매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매매 행위의 특성과 성격, 맥락에 기반해 보호/처벌 논의의 비판적 검토와 제언.

질적연구방법에서는 질적 연구 자료와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의 문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파편화 시키지 않고 가능한 연구 참여자 전체 생애-가족배경, 살아온 과정등-를 먼저 이해한 후 연구 참여자 생애 과정의 시간과 상황의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자료의 의미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경험 자체에서 건져올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 긴 기간 동안 관계를 갖으며 이들 경험의 맥락을 이들의 총체적 삶의 조건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다른 경험들, 다른 조건에 있는 연구참여자들간의 비슷한 경험들을 서로 교차시켜 분석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들에 대해 일정한 경향성의 해석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Ⅲ. 기존 문헌 검토

- 성매매의 자발성을 둘러싼 기존 논의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강제로 보는 입장과 개인적 자발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5] 한국에서 성매도에 나서는 소녀들은 대부분이 가출소녀들이며 이 가출 소녀들이 성매도에 나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기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 대부분은 가정해체, 가정 내 폭력 및 성학대, 성폭력의 경험과 같은 중층적 이유에 기반하므로 진정한 자발성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제되는 경향으로 본다. 청소년은 자신이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으로서 합리적 판단에 입각한 동의가 아니므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후자의 경우[6], 인터넷과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직업형, 기업형 청소년 성매도에 나서거나 혹은 중개자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을 매도하는 소녀들과 그 중개를 업으로 삼는 소녀들 중 기업형 윤락업소 식의 사업수완을 발휘하고 심지어는 성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미끼로 사기와 공갈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김시업(2000, 이원숙(2002)에서 재인용)은 원조교제와 성인 성매매를 나누어 전자는 상호합의적 행위, 후자는 의무적 행위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시작하게된 동기와 유사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원조교제는 성매매의 또 다른 하위형태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와 십대 성매매를 다른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여 원조교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절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 사후 방안 관련 법조항으로는 행동과제의 요구를 따라 성매도 소녀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매도 소녀들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

5) 박미숙,2001; 노혁,2000; 남미애,2004; 배기석,2005; 이경재,2001; 심희기,2002; 심영희,2001; 홍봉선, 2007

6) 서울지방 검찰청(2001년 6월 7일)이 법무부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개정안을 건의.

년 성보호법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아동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 대신 정황이 나쁠 때 검사의 재량으로 그들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소년 성보호법 제 13조) 이에 대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보호의 논쟁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요지를 제공하므로 상습적 성매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7] 후자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징역형의 부과는 낙인효과를 가져와 사회복귀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청소년 스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현행법상의 각종 보호조치들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시정, 보완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형벌이 지닌 일반예방적 효과 검증되지 않았으며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한 청소년에게도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CRC 행동과제 5. 회복과 재통합: 피해 아동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한다; 피해 아동의 회복과 그들의 사회 공동체 및 가정으로의 재통합을 지원한다〉에 위배되므로 현재의 보호처분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 할 것을 주장한다.(이순래, 1995; 김지선, 2001; 배기석, 2005; 이경재, 2001; 심희기, 2007; 홍봉선, 2007; 남미애,2000)

- 성매매의 실태와 맥락에 대한 기존 논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원인,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논의들로는 크게 사회구조적 원인과 배경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등장하는 성매매 청소년들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논의로 볼 수 있다. 전자의 논의들은(이민희, 2001; 이원숙, 2002) 문화적 조건(남성중심 성문화, 청소년 소비문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유흥산업, 가정에서의 소외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 속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을 설명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전제로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성격에 대해 연구한 논의들은(김시업, 2000; 김시업, 김지영, 2002; 김애령, 2003; 김종휘, 2001; 김혜원, 김명소, 2001; 김은실, 장필화, 1999; 공미혜, 2003; 신미식, 2001; 심영희, 2001; 유은주, 2005; 전대양, 2000; 조성연, 2000) 이들이 성매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성매매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자의식을 구성하게 되는 지

7)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건의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 속에서 참여 동기와 성격에 따른 유형화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매커니즘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종단적으로 사회 구조와 청소년들이 이들의 행위성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역동성과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와 개인은 고정적이고 안정된 관계 속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의 실태에 대한 인식으로는 그 행위와 성격의 복합적인 맥락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은 행위성을 매개로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일관되거나 순차적이지 않은 유동성과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과 맥락에 대한 검토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개인과 구조가 상호작용을 벌이며 벌어지는 유동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것은 기존의 단계적 접근과는 또 다른 의미의 '단계'에 대한 의미와 대안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자성의 성격과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성매매 청소년을 둘러싼 보호/처벌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Ⅳ. 결 과

1.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과 맥락

청소년 성매매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크게 적극적 행위성과 탈규범적 행위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성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그것에 대한 개인들의 간파와 해석, 그리고 대응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들의 사회구조적 하위문화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로, 이들은 학력이 계급 이동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간파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신들의 조건 속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만들어 내는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청소년들은 비공식적 자원의 교환과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계급이 이동했음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계급 이동 모방'을 통해 정체성을 한시적으로 확인하는 실천을 하게 된다. 청소년 성매매는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소비를 통한 계급 이동 모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의 의미로 축소되면서 이들의 성매매는 보다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적극성을 띠게 된다.

둘째로, 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지위 -불안정성과 전망상실이 평준화된 삶에 대한 간파를 통해 비유예, 비훈육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지위에 따른 저항 내지는 생존 전략의 의미로서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원리인 유예와 훈육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스스로 탈각시킨다. 현재를 유예를 해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과 훈육을 하지 않아도 별로 잃을 것이 없다는 간파에 따른 선택이다. 이러한 유예, 훈육에 대한 동기 상실은 이들이 사회의 지배적 규범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하면서 이들의 성매매 성격을 더욱 비규범적-사기성을 띤 성매매-으로 형성하고 있다.

<표 2> 성매매 성격과 맥락

성 격	맥 락
적극성 : 고가의 교환을 위한 노력	- 학력이 계급 이동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간파 - 미래에 대한 전망상실 - 비공식적 자원의 교환과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계급이 이동했음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계급 이동 모방'
탈규범성 : 원조교제 사기, 선불금 사기, 또래 원조교제 중개 등	- 불안정성과 전망상실이 평준화된 삶에 대한 간파 - 유예, 훈육에 대한 동기상실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원리인 유예와 훈육에 동기 상실

1) 적극성을 띤 성매매와 그것의 물적, 문화적 맥락

(1) 적극적 성매매의 물적, 문화적 배경 : 학력자본의 기능 약화와 계급 이동 모방 하위 문화

- 학력자본의 기능 약화

고용 불안정과 계급 양극화, 학력-직업-소득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안정 해진 사회 속에서 시간을 유예시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소득이 생기고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식의 삶의 디자인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부모 세대의 고용 불안을 그대로 목격하

며 자라난 십대 여성들은 더 이상 공교육으로 시간을 유예시켜봤자 보장되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비정규, 임시직이 증가하는 고용 불안정 시대에 학력은 계층 상승 수단의 기능을 잃고 있다. 모든 것을 개인의 노력/경쟁/자기계발의 탓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원리는, 개인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조건'(출신 계급 지위)이 개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노력으로 현실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제 더 이상 학력이 안정적 직업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간파와 함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학력을 갖추기 위해 채워야 하는 시간관을 거부한다. 다음의 지선과 경아의 사례는 현재 사회 속에서 학력-직업-소득의 불안정한 상관관계에 대한 이들의 간파와 함께 이에 따라 이들이 학력, 직업, 소득과 관계맺는 방식과 이 안에서 의미화 되는 성매매의 위치를 보여준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학교를 그만 둔 지선은 그 때를 떠올리며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3년을 참나..."라고 말한다. 자퇴 후 다방일, 거리 판매원, 조건 만남등을 하며 살아온 지선은 학교가 제공한 시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고1때 자퇴를 하고 '사회 경험'을 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온 지선은 한학기를 못 넘기고 다시 학교를 그만 두었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시간은 사회에서 경험했던 시간과 너무 달랐다. 내가 원하는 현재가 바로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던 비유예적 시간과는 달리 학교의 시간표 속에서는 목적 없이, 미래 없이 현재가 유예되고 있었다. 다시 학교를 나온 지선은 월수입 150만원의 불법 카지노 딜러 일을 하며 살아간다.

대학 졸업 뒤 외모가 안되서 취직 못하고 단식원에 살 빼러 들어와 있는 언니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경아는 '대학 나와 고만고만 하게 사는 삶'으로 그들을 이해했다. 대학 졸업은 이제 더 이상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가능성의 출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얌전히 학원 다니며 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온 뒤 가능한 현실은 굳이 경험해 보지 않아도 전망 없어 보이는 미래였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섹슈얼리티 시장에 뛰어든 경아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번듯한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룸싸롱에서 일하거나 대학을 나와도 '몸' 때문에 취직이 안되서 단식원에 들어와 있는 다른 언니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한다. 학력과 직업과 소득이 불일치 하는 고용불안정 시대에 어차피 확실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남자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가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교환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낫다는 것이다. 이어서 경아는 반에서 한 10등 정도까지는 정규직이 가능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짜잘한 인생들'이라고 하면서 '참 뻔 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다. 불안정 고용의 현실에서는 점차로 자신을 '직업'의 종류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소비의 수준으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텐프로에 대한 경아의 선망 뒤에는 '어차피 공부해서 대학 나와도 이정도 벌 수 있는 곳은 없다'는 현실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비관적 간파가 깔려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가'보다는 '어디에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굳이 '남들에게 말 할 수 있고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떳떳함은 성산업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직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 받을 수 있는 범주의 사람은 극히 적고, 그 나머지 직업은 단지 밥벌이 수단으로 평준화 된 채 이해된다. 이때 그 나머지 직업들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일의 종류보다는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차이가 된다. 성산업에서 일한다는 것의 낙인은 여전하지만, 변한 것은 성산업에 대한 낙인이 알바인생에 대한 낙인보다 더 치명적인 낙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산업의 의미는 그것 자체로 단독으로 작동되지 않고 알바/비정규직/실업/불안정한 고용시장 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 성산업의 의미는 불안정한 고용시장, 계층상승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학력의 현실, 이들의 하위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다. '알바 인생'에 대한 낙인 보다 '성산업'에 대한 낙인이 더 치명적이어야 할 이유가 굳이 없는 조건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인적 자본의 위계로 통용되던 차이들을 '다 똑같은 것'으로 무화시키는 현 시대의 조건 속에서 미래를 위한 목표와 그것을 위한 현재의 유예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

- 계급이동 모방의 하위 문화

십대 여성들은 삶의 불안정성과 임시성 속에서 아무리 가까운 미래라도 미래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었다는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실을 잊게 해 주는 선택지중 하나는 가상으로 자신의 삶의 조건을 상향 이동 시킨 것 처럼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계급이동에 대한 모방이다. 이들의 좌절은 실제의 계급적 지위와 상관 없이 특정한 계급적 수행을 부추기는 소비중심주의 문화와 쉽게 결합하게 된다.

학력도, 배경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계급 이동이 불가한 처지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실제 내가 포함될 수 없는 계급 생활의 일부를 모방하는 계급 수행이다. 문화적 자본, 학벌, 집안 배경, 그리고 안정된 직장은 쉽게 만들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만들 수 있다. 이 때 이들의 '소비'는 시간 압축적인 정체성을 구매하는 의미를 갖는다.[8)]

쉼터에서 처음 만났던 지선과 불법 카지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 있었다. 지선은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월세 100만원 짜리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남는 시간은 주로 압구정동 까페와 음식점에서 보냈다. 잘 관리된 긴 머리와 화려한 옷차림 때문에 압구정동 거리를 걸어다니는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의 여성들과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의 1/3정도가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는 옷과 식사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아지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선은 미래에 대한 별 다른 불안도 걱정도 없이 현재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지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소비를 통해 어떤 계급적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현실의 좌절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그 소비를 충당시키기 위해 비공식적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든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2) 적극적 행위성을 띤 성매매

이들은 비공식적 자원을 가지고 계급 이동 모방을 통해 자신이 욕망하는 계급을 흉내내며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비공식/불법 경제활동으로 버는 그 많은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은 이들 삶의 토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연쇄작용을 만들게 된다. 이 때 성매매 일은 현재 이들의 삶에 가장

8) 이들이 소비를 통해 가상의 정체성을 모방함으로써 시간 압축적인 정체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이 사회적 평균 이상으로 사회적 시간을 가속화 하려는 동기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은 빠른 평균 회전시간을 향한 사회적 경향들을 촉진시키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따라서 회전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과정을 가속화 하는 한편 의미 있는 의사결정의 시간을 감소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일삼는다.(하비, 1994)

큰 의미를 만들어 주는 '계급 이동 모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축소된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성매매의 의미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몸을 더욱 적극적으로 교환하기에 이른다.

> 이왕 이 일해서 돈 버는 거 이 일에서 에이스가 되자.(웃음). 어딜가나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센스. 막 노래같은 것도 코러스 이빠이 넣고 섹시한 춤도 막 춰주고. 친구들 붙잡아 놓고 야, 다같이 이러면서 연습도 하고.(정미)

> 진짜 작은 물고기가요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나를 밟고 올라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방 같은 거도 그래요. 내가 손님한테 이만큼 서비스를 잘해서 지정을 받아서 이만큼 매상을 올려요. 근데 저보다 더 서비스를 잘 하는 언니가 있어서 제 매상을 앞질러요. 그럼 업주가 이 언니를 더 이뻐하고. 근데 일단 다방에서 돈을 벌라면 업주한테 잘 보여야 되요. 그래서 이 언니랑 나랑 경쟁을 하는 거에요. 그게 먹고 먹히는 거죠. 정미랑 저랑도 그런 면에서 경쟁을 했고. 모든 아가씨들이 다. (어떻게 되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 거기서 낙오자 한명이 있었어요. 그 언니는 하루에 배달을 한 두개 갈까말까. 하루에 5만원 벌고. 얼마나 서러워요. 다른 아가씨들은 하루에 30만원씩 찍고 그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인제 그 언니는 포기를 하고 낙오자가 되버린 거지. 아, 저 언니처럼 낙오자는 되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면 막 음식물 쓰레기 평소에 집에 가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정말 우리 엄마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번씩 아줌마 불러서 다 치웠어요. 정말 엄마나 저나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막 제가 '어 오빠 제가 다 청소해 드릴게요' 막 다 이럭혜 해가지고 밖에다 다 내다 버리고 설거지, 빨래, 안마. 그런 면도 있었지만 솔직히 좀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것도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한 수단이었죠.(경아)

미래에 대한 전망상실과 현재의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형성된 이들의 하위 문화는 이들의 성매매가 적극성을 띠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다.

2) 탈규범성을 띤 성매매와 물적, 문화적 맥락

(1) 탈규범적 성매매의 물적 문화적 맥락: 유예, 훈육에 대한 동기 상실

학력이 매개된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 상실과 삶의 불안정성은 이들에게 현재의 축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눈 앞에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유예와 훈육에 대한 동기를 상실 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문화는 이들을 비공식 자원과 관계망에 노출시킨다. 현재를 유예시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는 것이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지배적인 가치로 자신을 훈육시키는 것과 아닌 것이 뚜렷한 효과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간파는, 눈 앞에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든다. 현재를 유예를 해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과 훈육을 하지 않아도 별로 잃을 것이 없다는 간파에 따른 선택이다. 유예와 훈육에 대한 동기상실은 이들이 가족을 벗어나 비공식 자원과 관계망이 매개된 장으로 이동하거나 이동 대기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들에게 임시적이고 일회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매개체는 이들이 형성하게 되는 거리 친구들의 성격이다. 이들이 만나는 친구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함께 지내고 필요가 다 하거나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유효기간'이 확실한 친구들이다. 이러한 관계의 특성은 이들이 기존의 지배적인 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며 비공식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조건이 된다. 사람들이 어떠한 규범으로 자신을 훈육시키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계기는 자신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정체화 되는가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임시적이고 일회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지속적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성찰하거나 훈육시킬 동기를 부여하는 시선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언제 또 볼 지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불법적 행동을 모의하는 일도 더욱 쉬워진다. 결국 이들이 맺는 관계의 특성은 이들을 비성찰적이고 무규범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비공식적 자원과 관계망은 이들의 삶을 임시적이고 일회성을 띠게 만들게 되고 이러한 임시적이고 일회적 삶은 곧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검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규

율할 수 있는 동기를 상실시키는 배경이 된다. 규율의 수행이 더 큰 보상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규율의 위반과 정상성의 위반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큰 위험을 낳지 않는 조건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적인 규율과 정상성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문제적' 아이들과 이들을 '문제아'로 만드는 하위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와 문제 아닌 것, 규범과 규범 아닌 것이 발생시키는 효과의 차이를 탈각시키는, 지배적인 규율과 정상성이 발생 시키던 보상의 효과를 점차 무화 시키는 사회적 조건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이 속에서 형성되는 이들의 비유예, 비훈육적 하위문화는 이들의 성매매가 탈규범적 성격을 띠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2) 탈규범성을 띤 성매매

위와 같은 유예와 훈육에 대한 동기 상실은 이들의 성매매가 탈규범성을 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탈규범적 성매매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선불금만 받고 다방에서 당일 도망을 치거나, 또래 남자아이들과 팀을 이루어 원조교제 사기-남성을 모텔로 끌어들인 뒤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것-를 치거나, 또래 여자아이들을 포섭해서 또래 포주역할을 하며 돈을 버는 등의 사기성을 행위로 볼 수 있다.

경아는 중학교 3학년 때 첫 가출을 한 후 중3 겨울에 본격적 가출을 시작했다. 같이 가출했던 언니를 따라다니며 속칭 '지방 타기'기술(선불금을 받고 도망가는 것)을 배웠다.

미연이도 집을 나온 뒤 알고 지내던 언니가 소개시켜준 서울서 자취하는 언니를 메신저로 처음 만나게 된다. 메신저로 친해진 뒤 그 언니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들어가 함께 놀며 지냈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맺음 없이도 즉석에서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쉽게 만들어 질 수 있다. 이 자취방도 여느 자취방과 마찬가지로 이리 저리 즉흥적, 임시적,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임시성은 이들이 쉽게 '불법'적 모의를 꾸밀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미연은 자취방에서 만난 언니 오빠들과 '원조교제 사기'[9]를 하다가 잡혀 보호관찰을 받았다.

돈이 없어서요 사기를 친 적이 있어요.(무슨 사기?) 오빠들이랑 언니들이랑 막 채팅

9)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 여관까지 간 뒤 남자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빠들에게 핸드폰으로 방 호수를 알려주고 웨이터인척 하고 방문을 연 오빠들이 남자를 집단으로 구타한 뒤 돈을 받아 사라지는 것.

으로 만나자고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원조. 그런식으로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안 하고 돈만 받고?) 아니요. 아, 이거 또 말해드려야 되요? 그니까요 채팅으로 만나자 그래요. 그럼 만나잖아요. 거기까지 가요. 여관까지 간 다음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요. 남자가 씻는 동안에 문자를 보내요. 여기 어디어디라고. 그럼 카운터라고 하고 문 열어서 폭력을 주먹을 휘두르고. 돈 받고. 저는 그냥 조용히 빠져 나가는 거고. (그렇게 얼마나 벌어?)하루에 몇십 만원 정도. (그런데 어떻게 잡혔어?) 거기 같이 사는 오빠 중에 여자친구가 하루 이틀 지내다가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 나가려고 화장하고 준비하는데 막 뭐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그랬나보다. 폭력 때문에 들어갔어요. 걔네들 잡아서 패서. 걔네가 집에 들어갔는데 걔네 엄마가 와서 따지고 그걸로 걸려 들어가면서 걔네가 다 불어가지고. 아이 씨. (미연)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십대들끼리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불법적 자원이 형성되기도 한다. 한결이 알려준 십대들의 연결망은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노는 그룹'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 친구를 통해 서로 소개를 받거나 버디버디(이들이 채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친구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뿌려주면 모르던 사람들과 '아는' 사이가 된다. 서로 상황이 맞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인맥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은 사회의 지배적 규율을 무화 시키는 그들만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 아이를 골라 인터넷 '수배'를 내리고, 그 아이를 찾아준 아이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아이를 집단 폭행한다. 혹은 '찍힌' 여자 아이에게 원조교제를 시켜 돈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자원은 짧은 기간만을 버틸 수 있는 양 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축적되지 못한다. 또한 사회에서 십대이자 여성에게 부과하는 지배적 규범과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자와 자원 없이 가족 밖의 관계망을 떠도는 십대들에게는 기존 질서와 규율의 '위반'이 곧 '자원'이 된다.

2. 자발적 성매매의 성격 : '유동적 과정'으로서의 성매매

1)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성매매: 상황에 따른 유동적, 역동적 선택 과정

성매매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과로서의 단일하고 고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단계성과 유동성, 그리고 역동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은 성매매의 경험 이후 이전을 가를 수 있는 단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보다는 성매매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 성매매에 대한 욕구와 성매매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대안적 개입 방안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이들이 성매매를 벗어나 다른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의 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둘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적 변화는 이들에 대한 개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유동적/역동적 변화 과정에서 주의깊게 볼 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시기가 있다는 것과, 그러한 동기상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변의 요인들에 또한 이들이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동기상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강하게 내외부적으로 자신을 추동할 힘이 없을 경우 다양한 사회 현실을 이유로 다시 성매매로 진입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자기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3> 성매매를 통한 변화의 과정

연구 참여자	유동적/역동적 변화의 과정
경아	다방 일-〉쉼터 입소-〉검정고시 학원-〉지방 다방 일-〉다시 공부 계획-〉다방 일
정미	다방 일-〉쉼터 입소-〉핸드폰 대리점 취직-〉할인마트 점원 취직-〉고입 검정고시 합격-〉노래방과 업소 일
지선	다방 일-〉고등학교 복학-〉원조교제-〉쉼터 입소-〉미용 기술-〉불법 카지노 일과 온라인 쇼핑 몰 모델 일 병행

<표 4> 성매매 단계별 변화 과정

연구 참여자	단계별 변화 과정	
	초 기	후 기
경아	학업에 대한 의지.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꿈. 돈을 모아 유기견들을 보살피는 가게를 내겠다는 꿈.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뿌듯함. 목표의식.	하루 무단 외박을 계기로 쉼터에서 나온 뒤 지방으로 내려가 단란 주점일 시작. 대학 나와봤자 별 볼일 없음. 뭘 하든 돈을 버는 것이 중요. 이정도 돈 벌 수 있는 일 찾기 어려움. 대졸 미취업자들을 예로 들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당화. 동시에 자신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 표출. 약간의 빚으로 인해 '스트립쇼'를 하는 업소에 나가게 된 후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회의.
정미	쉼터입소 후 새로운 목표 생김. 쉼터 퇴소 이후에도 착실하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고입검정고시 합격.고입 검정고시 합격 후 엄마, 아빠, 할머니와 다시 연락 시작. 가족들이 자신을 뿌듯해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함. 얼마 안되는 돈 저축하면서 고생해서 번 돈의 뿌듯한 느낌 경험. 자신의 삶의 시간에 대한 자기 주도적 계획과 관리	예전에 다방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와 연락이 닿은 뒤 다시 업소 일 시작. 막막해 보이는 대입 검정고시와 당장 돈을 쥘 수 있는 업소 일 사이에서 업소 일 선택.
지선	쉼터 입소 후 미용기술을 배우며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동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쉼터 나와서 불법 카지노에 취직. 별 다른 목표의식 없이 생활

경아는 2005년 처음 쉼터에서 만났을 당시 전에 일하던 다방의 업주와 월급관련 문제가 생겨 쉼터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경아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했고 부모가 이혼 한 뒤 고 1부터 장기 가출에 들어간 상태였다. 쉼터에 오기 전까지 전국의 다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고 가끔 친구와 짝을 이루어 원조교제를 하기도 했다. 처음 쉼터에서 경아를 만났을 때 경아는 주로 미용학원에 다니는 다른 쉼터 친구들과는 달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경아는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가서 스

튜어디스가 되겠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세달 뒤 다시 만났을 당시에도 경아는 여전히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전에 함께 일하던 언니들이 간혹 같이 일하자고 전화를 하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다. 경아는 가끔씩 전에 돈을 쓰던 습관 때문에 쉼터에서 나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생각에 많이 흔들린다고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경아로부터 자신이 쉼터에서 나왔고 광주의 단식원에 머물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광주로 찾아가서 경아를 만났을 때 경아는 다시 그 지역의 단란주점 2곳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었다. 경아는 단식원에서 만난 사회복지학과 출신 언니와 함께 언니 집이 있는 천안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달 뒤 다시 광주를 찾았을 때 경아는 여전히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때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기를 두고 씨를 뿌려가는 작업인 것 같아서 힘들지만 뿌듯하다고 했던 경아는 단식원에서 만나는 미취업 대졸자 언니들의 현실, 엄청난 고소득을 보장하는 강남의 고급 룸싸롱 이야기를 대조시키며 현재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다.

정미의 이동 과정도 다양한 이동성 안에 위치한 여성 주체를 보여주고 있다. 정미는 경아와 같은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경아와 함께 쉼터에 머물고 있었다. 부모의 이혼 뒤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정미는 엄마 동거남의 성폭력으로 장기 가출을 시작했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등지에서 일을 했다. 쉼터에 들어온 뒤 친척오빠와 다시 연락이 된 정미는 친척오빠와 그의 여자친구의 조언으로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정미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치원 선생과 간호 조무사 둘 중 하나로 진로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정미는 쉼터를 나갔고 5월경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인천에서 자취를 하며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정미는 쉼터에서 나간 뒤 무작정 익산으로 가서 남자와 약 한달 간 동거를 하다가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그 뒤 그 해 9월에 정미를 다시 만났을 때 정미는 또 다시 달라져 있었다. 노래방 일을 접고 핸드폰 대리점에서 판매원 일을 하고 있었고 밤에 퇴근 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정미는 나이도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한달 뒤 정미는 강남의 한 대형 할인마트 캐셔로 자리를 옮겼고 1년 정도 이 일을 한 뒤 예전 친구들을 만나 다시 성산업 일을 하고 있다.

쉼터에서 처음 만나게 된 지선은 원조교제를 하다가 적발되어 쉼터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쉼터에 들어온 뒤 마음을 돌봐주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고 지선은 경찰의 꿈을 키우며 남자친구와 함께 열심히 살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집을 나와 '혼자 있는 것'이 주는 고단함에 지쳐있던 지선에게 짧게 만났다 헤어지는 거리 친구들과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던 경험은 잠시 다른 삶을 꿈꾸게 했다. 집을 나온 후 3년정도를 혼자 떠돌아 다녔던 지선은 '혼자 살면 어느 날 딱 지쳐요. 그럴 땐 아무 것도 안하고 방에 술 사들고 와서 계속 술만 마시고.' 라는 식으로 친밀성과 보살핌이 박탈된 삶이 주는 피폐함을 표현했다. 지선이 원하게 된 것은 도구적 기능을 분담하는 가족이 아니라 따듯한 친밀감이 살아 있고 안정적이며 내 삶의 흔들리지 않는 지표가 되어 줄 관계와 공간 이었다. 한 동안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태도에 희망과 계획을 싹트게 했다. 나의 일상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의 시선은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기 규율의 공간을 내면에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된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할 이유가 없던 마음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시작 되었다. 그 다음 해 2월 지선은 쉼터를 나와 광주에서 동거를 하며 일을 시작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서울로 혼자 올라가 버렸다. 자연 유산이 된 후 지선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일을 시작했다. 한 때 경찰의 꿈을 키웠던 지선은 불법 카지노의 빙고 딜러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지선은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달에 150 정도 번다'고 자신의 일을 소개했다. 지선은 이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삼아 인터넷 의류 쇼핑몰 모델 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역동적 변화 과정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동기를 상실하고 회복하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과정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단계별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 동기를 회복하고 탈성매매할 가능성이 내재함을 보여준다.

2) 출구의 가능성 : 지속적/통합적 보호처분의 예

연구 참여자들 중 성매매의 경험에서 벗어나 학업등 다른 삶의 동기를 부여받아 성매매를 벗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청소년 성매매의 출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때 이들의 탈성매매를 가능하게 했던 외부적 조건은 1)지속적 2)통합적

3)청소년기 이후까지의 연속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10)]

다음의 혜림과 경미의 사례는 이와 같은 출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혜림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가출 이후 아버지와 한 부모 가구를 이루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후 혜림에 대한 아버지의 상습적 폭력이 이어졌고 주위 이웃들의 신고로 쉼터로 보내졌다. 쉼터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던 혜림은 중 2 말부터 중 3 중반까지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은 채 거리에서 생활하며 친구들과 본드를 시작했다. 쉼터의 도움으로 거리 생활을 접고 재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출석일수가 모자랐지만 교사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실업계에 진학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몇 차례의 가출과 그로 인해 쉼터를 퇴소하고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되었다. 혜림은 몇 차례 위기를 겪으며 비공식적 자원이 매개된 임시적인 거리 생활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쉼터와 학교로 돌아왔고 지금은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2007년 12월) 혜림은 졸업을 앞두고 있고 얼마 전 회계사 사무실에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취직을 했다고 연락해 왔다. 혜림이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과 달리 방황을 하면서도 자신이 목표로 했던 꿈에 착실하게 도달하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지지집단'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혜림은 부모의 이혼 뒤 엄마쪽 식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고모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쉼터에 거주할 때에도 고모들은 용돈을 보내오거나 전화를 주며 혜림의 안부와 앞날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았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고모는 혜림을 제주도로 초대해서 관광을 시켜주기도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지집단이 가족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꾸준히 자신의 삶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는 관계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방황을 하는 도중에도 자신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즉 혜림의 사례는 보살핌과 돌봄의 기능을 상실한 가족 대신에 자원과 비전을 가진 윗세대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자원과 시간을 이

10) 이러한 사실은 영국 내무성에서 tjdaoo 청소년과 여성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11개 다중기관 시범 프로젝트인 Crime Reduction Programme(CRP)의 평가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CRP의 평가결과는 1)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계획적, 지속적, 다기관적 작업의 효율성, 2) 1대 1 지지의 중요성(1대1 지지가 실시된 탈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참여 여성의 69%가 성매매에서 탈출하거나 탈출 시도를 보였다.) 3) 성매매라는 특별한 문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청소년의 개별적 욕구 파악과 더불어 전체 인간으로서 간주하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홍봉선, 2007)

들과 공유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경미는 가출과 성매매 경험 이후 십대 후반에 입소하게 된 쉼터에서 단순한 기술 교육이나 검정고시 교육에 대한 권유가 아닌 삶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과 변화의 충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쉼터의 통합적, 전인적 프로그램 덕분에 삶에 대한 다른 비전과 관점을 가지게 되어 성매매를 접고 다른 길로 들어선 경우로 볼 수 있다. 경미의 경우 십대 후반의 나이여서 십대를 위주로 받는 쉼터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지만 십대에 성매매 경험을 하고 이십대로 접어드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부재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의 존재 덕분에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 경미의 사례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지원이 십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십대 시절을 성매매로 보낸 탓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부재한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한 쉼터와 사회적 지지기반의 연속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이혼 뒤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가출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아빠와 상의한 끝에 학교를 자퇴했고 그 뒤로 경미는 본격적으로 성산업 일에 뛰어 들었다. 업소에서 일하던 중 문제가 발생 해 그만 둔 뒤 쉼터로 들어가게 된 경미는 2차례 쉼터를 옮기면서 대입 검정고시를 땄다. 그 뒤 연예 기획사 매니저 등의 등의 일을 하다가 작년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다. 경미는 쉼터에 머물면서 자신의 길을 작곡으로 정했고 쉼터에서 작곡에 필요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 경미가 머물고 있는 쉼터는 20대 이상의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로 검정고시와 미용기술이라는 일률적인 여타 쉼터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쉼터는 단기간의 자립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긴 삶을 버틸 수 있도록 자신 만의 철학과 내공을 기를 수 있는 인문학적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경미는 이 곳에서 여성학 프로그램을 접했고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의 노래교실에도 참여 했으며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진행하는 철학교실을 수료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미는 임시적이고 일회성을 띤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기를 회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부터 읽을 수 있는 것은 외부적 조건의 개입이 달라 질 때 성매매로부터 다양한 위치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출구의 가능성이 이들 내부에 내재해 있다는 점이다.

V. 성매매 청소년 자발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제언

1.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을 둘러싼 논쟁과 본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
- 청소년 성매매의 겉으로 드러난 주요한 특징은 강제되거나 강요된 피해자로서의 모습 보다는 '적극성을 띤 행위성'과 '탈규범적 행위성'(사기성 성매매, 청소년 또래 포주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이 보이고 있는 성매매의 적극성은 불안정한 삶의 조건과 점차 약화되어가는 학력자본의 의미에 대한 간파 속에서 '소비'를 통한 계급 모방 문화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하위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 - 불안정한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전망상실' 문화는 이들에게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하거나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를 탈각시키는 배경이 됨. 이러한 비유에, 비훈육 문화는 이들의 성매매가 탈규범적 성격을 띠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룸.

청소년 성매매의 자발성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행위를 자발적 동의로 보는 시각과 가족/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회구조적 피해로 보는 시각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조건에 대한 간파, 사회의 집합적 책임 대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건 속에서 학력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 이러한 삶의 조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형성하고 있는 비유예문화, 비훈육문화와 같은 개인 내 외적인 다층적, 역동적 과정을 거치며 성매매를 선택하고 적극적인 행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자발성, 피해자의 양분화된 시각을 넘어서 이들이 성매매에 대해 취하는 적극적이고 탈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만드는 단계적, 과정적, 역동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각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단계적, 현실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성매매 청소년의 보호처분/처벌논쟁에 관한 비판적 논의

<표 5> 성매매 청소년 보호/처벌 논쟁과 본 연구의 시사점

성매매 청소년의 보호처분/처벌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본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
- 성매매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와 연관된 주요 특징으로 유동성과 단계별 특징을 들 수 있음. - 이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동기를 상실하고 회복하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과정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함. - 몇몇 사례들로부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청년기까지 연속선을 갖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회복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들이 보여주는 단계별 특징은 성매매 초기와 상습화 단계에서 이들에게 개입되어야 하는 지원의 내용이 각각 차별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현재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개입 방안으로는 보호와 처벌이라는 두 입장으로 나뉘어 진다. 처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호처분이 청소년들에게 면죄부가 되서 성매매를 남용할 요지를 준다는 입장이고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보호처분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동기를 상실하고 회복하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과정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몇몇 사례들로부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청년기까지 연속선을 갖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회복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 제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성매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성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자발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발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자발성을 이유로 처벌을 주장하거나 이들을 피해자화 하여 보호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 보다는 이들의 자발성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읽음으로써 이분법의 논리를 벗어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조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벌이며 상황에 따른 선택을 벌이는 청소년들의 변화 지점에 효과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들의 행위성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논의로부터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매매 청소년이 구조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유동적, 역동적, 상황적 행위성을 드러내었고 이것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대안적 접근이 갖는 성매매 행위와 영향에 대한 특정 시점에 기반한 접근과 순차적 단계성의 한계를 드러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미식(2001)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동기, 가출여부, 재학여부, 참여기간, 범죄여부, 미래에 대한 생각등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험 안에서 성매매 청소년은 가출여부, 재학여부, 범죄여부, 기간, 미래에 대한 생각등의 경계를 순차적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넘나들며 '다범주적 경계넘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이 '단계적' 경험을 거치고 있다면, 이때의 '단계'의 의미는 '순차적 단계'로부터 '상황에 따른 유동적 단계'로 재의미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이들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 기존 논의로부터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들은 가출과 집거주, 학업중단과 재입학, 단기간과 장기간, 범죄와 비 범죄, 희망과 절망의 경계를 단선적, 순차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가출에서 집거주, 다시 가출/단기에서 장기, 다시 단기로의 이동등 비순차적 단계를 거치며 이동해 다니고 있다. 따라서 조기/초기/혼돈 단계등 단선적인 시간관에 근거한 단계별 접근 대신에 비순차적인 이동과 그 이동 분기점에서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 째로 본 연구의 성공적 사례는 청소년기에서 초기 청년기로 이동하는 시기까지 이들에 대한 지원 시기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입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공미혜(2003), 성각본 모델에 의한 여성청소년의 성행위 분석-원조교제 경험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5집 제3호, pp. 135-156.

김시업(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시업, 김지영(2002),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1호.

김애령(2003),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지선(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김혜원, 김명소(2001), 청소년 매매춘의 현황파악, 원인규명 및 예방책 제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6권 제1호.

남미애(2005),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사회적 지원 방안. 사회과학논문집, 제23권 제2호, pp. 311-342.

남정림(2004),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문화의 특성과 행위자 전략에 관한 성문화적 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11권 제2호, pp. 301-320.

노혁(2000), 가출여자청소년의 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사회사업, 제3호, pp. 51-84.

도미향, 윤지영(2004).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1호, pp. 19-33.

박미숙(2001),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 성보호. 수사연구, 제19권 11호, pp. 116-123.

_____(2000).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및 법률해석. 수사연구, 통권 제203호, pp. 10-17.

배기석(2005), 청소년 성보호법의 운용상 문제점 검토 및 입법론. 영산논총, 제15집, pp. 15-26.

신미식(2001), 10대 여자 청소년 원조교제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_____(2000), 성매매 청소년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영희(2001), 청소년 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pp. 7-29.

심희기(2007),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오늘의 청소년, 제23권 제4호, pp. 22-24

_____(2002),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pp. 75-103.

안경옥(2002),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pp. 5-33.

유은주(2005), 성매매 청소년의 자의식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195-224.

이경재(2001),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pp. 31-54.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제2호, pp. 99-130

이순래(1995), 지역사회내 청소년 범죄자 대처방안: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회봉사 명령과 의무관찰. 형사정책, 연구 제24호, pp. 31-52.

이원숙(2002), 청소년 성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이춘화, 조아미(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대양(2000), 신종 10대 매매춘의 실상과 대책-원조교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정규석, 조정자, 유순화(2003), 청소년 성매매 모델에 대한 다체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239-259.

조성연(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I: 원조교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9-42

홍봉선(2007).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정부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pp. 387-424.

Harvey, David(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박영민 공저. 서울: 한울

Scamber, G & Scambler, A(1995), social change and health promotion among sex workers in Lond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Vol. 10 No. 1,* pp. 17-24.

Weiner, A(1996), Understanding the social needs of adolescent prostitutes, *Social Work*, *Vol. 41 No. 1,* pp. 97-105.

ABSTRACT

A Critical Examination on 'Spontaneity' of Choice and Escape from Prostitution by Adolescents based on Contextually based Qualitative Research

Min, Ka-Young*

This research aims to qualitatively examine the issue of 'voluntary prostitution' among adolescents to and evaluate the debate on 'protection/punishment' for adolescents who engage in prostitution. This research pursues an alternative from of service for them. Existing debates regarding the issue are divided into two positions. One form is of a voluntary nature and the other position is that such adolescents are social and economic victims. There are also two positions regarding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prostitution amongst adolescents. One position, suggests that punishment is one way to discourage prostitution. The other position, that of protection, suggests that the point is not that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punitive measures against prostitution, rather, the problem is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means of protection for vulnerable adolescents. According to our results, adolescent prostitution reveals voluntary agency. Voluntary agency is based on seeing through poor educational roles as a means of upward mobility.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vulnerable adolescents have experienced a fluid process in which they find themselves lost and seek out and find the motivation for striving for a better life and quitting prostitu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make plans and set up service infrastructures that are consistent and form part of a close

* Researcher, Korean Women's Institute at Ewah Womans University

and complimentary network among related institutions. In addition, we need to develop a sense of perspective in which we can understand adolescent prostitution in terms of it being dynamic process.

Key Words : adolescents, prostitution, voluntary, agency, protection, punishment, lost of motivation

투고일 : 12월 14일, 심사일 : 1월 22일, 심사완료일 : 2월 11일